

맑고 깨끗한 환경은 환경을 지키려는 사람들의 욕망은 의지와 노력에 의해 살아 숨쉬는 환경으로 바뀌었다.

생활 속에서 환경을 살리는 일을 온몸으로 실천하는 '녹색을 심는 사람들'을 만나본다. <편집자>

녹색을 심

93.1.1

재활용품 수집 옥수동 현대아파트 주민

서울 성동구 옥수동 현대아파트 102동 1층부터 15층까지 1, 2호에 사는 30가구 주민들은 생활 속에서 녹색환경운동을 실천하고 있다.

고층아파트라 매일 아침저녁으로 엘리베이터를 함께 쓰는 이들은 한 가구도 빠짐없이 재활용품 분리수거에 동참하고 있다.

“버리면 쓰레기, 모으면 자원”이라고 하잖아요. 재활용품 분리수거를 열심히 실천하다 보니까 쓰레기로 버릴 게 별로 없어 전보다 쓰레기 양도 절반 가량으로 줄어들었고요.”

102동 반장 김순자(38·1502호)씨는 이웃끼리 함께하는 재활용품 분리수거로 “주위환경도 깨끗해지고, 이웃끼리 한가죽처럼 친하게 된 것이 무엇보다 큰 소득”이라고 자랑한다.

옥수동 현대아파트 102동 ‘한지붕 30가구’가 재활용품 분리수거를 시작한 것은 지난해 10월 1일부터다. 8개 동 5백66세대가 사는 이 아파트에 지난해 1월 쓰레기 분리수거함이 설치됐지만 9개월이 지나도록 제구실을 못하고 재활용품 수거통이 일반 쓰레기통으로 둔갑하기 일쑤여서 “우리끼리 해보자”고 발벗고 나섰다.

이들의 열성을 높이 사 각 동 대표회의에서 102동을 재활용품 분리수거 시범동으로 지정하기도 했다.

이들이 모으는 재활용품은 다양

하다. 일주일치만 모아도 수북히 쌓이는 신문지를 비롯해 각종홍보지, 우유갑, 빈병, 강통, 헌옷, 빈 요구르트 병, 폐식용유 등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무엇이든지 모은다.

매주 목요일 저녁이면 각 가정에서 일주일 동안 모은 것을 온 가족이 1층 경비실 입구로 들고 나온다. 종이가방에 차곡차곡 넣어온 신문지를 저울에 달아 2kg씩 따로 묶고, 덩치 큰 종이 상자들을 모아 끈으로 묶어 지하실로 나르는 일은 회사원 김영재(35·1101호)씨 등 남편들이 도맡는다. 주부들은 납작하게 펴말린 우유갑을 1백장씩 한 묶음으로 만들고, 빈 병을 종류별로 부대에 담는다.

이렇게 정리해둔 재활용품들은 한국자원재생공사에서 2주일에 한



매주 목요일 저녁마다 각자 집에서 모은 재활용품을 정리하고 있는 주민들. “무심코 버리는 쓰레기를 모아 자원이 되게 하는데 보람을 느낀다”고 입을 모은다.

참여 통해 공동체삶 되찾아

저축한 돈 모아 어린이 도서관 마련 꿈

번씩 들러 사간다. 신문지 1관에 60원, 강통 1kg 10원, 헌옷 1kg 10원, 알미늄 1kg 3백원, 빈상자 1kg 50원으로 아주 적은 돈이지만 2주일에 보통 1만5천~2만원이 저축된다.

이들에게는 꿈이 있다. 각 가정

에서 모은 재활용품을 팔아 저축한 돈으로 지하실 빈 공간에 ‘아이들을 위한 도서관’을 만들어주는 것이다. 고운 빛깔의 벽지로 도배를 하고, 아이들이 볼 만한 좋은 책을 다양하게 마련해 언제나 누구든지 들러 책을 볼 수 있

는 작은 공간이 만들어질 날을 이들은 손꼽아 기다린다.

아쉽지만 우선은 아파트 입구 편지함 아래에 작은 책꽂이 2개를 마련해 한 집에서 한 권 이상의 동화책을 내놓아 1백50원 가량 꽃아두고 맘껏 뽑아보게 하고 있다.

“쓰레기를 덜 버리면 그만큼 주위환경이 깨끗해지고, 우리가 무심코 버리던 쓰레기를 정성껏 모으면 그것이 재활용과 자원이 된다는 것을 생각하면 참 뿌듯해요. 아이들에게 ‘살아 있는 환경교육’도 되고요.”

지난해말 옥수동 현대아파트 제2대 부녀회장으로 뽑히기도 한 김영애(39·902호)씨는 “102동 30가구에서 실천하고 있는 재활용품 분리수거운동이 올해는 우리 아파트 전체로 확산되도록 하겠다”고 ‘30가구 주민들의 녹색꿈’을 펼쳐 보인다.

신연숙 기자